



# 태백지회, TMR발효사료제조기 확보

- 태백시로부터 80% 지원받아, 회원농가들 공동사용 -

태백지회가 태백시로부터 TMR발효사료제조기를 지원 받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사료를 사슴에게 급여할 수 있게 됐다.

태백시는 TMR발효사료제조 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1억6천7백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억3천3백6십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 사항을 태백지회 이창호 지회장에게 알려왔다.

이에 태백지회는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3천3백4십만원의 자금을 지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각출, 마련키로 하고 시설은 공동 사용키로 결정했다.

대두박, 볏짚, 톱밥, 맥주박 등 총 10여가지 이상의 원료를 사용해 생산되는 발효사료의 원가는 kg당 100원~150원이면 충분키 때문에 태백지회 회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사료 급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하루 생산량이 최대 20톤까지 가능해 지회 회원 및 지역 양육농가들 모두가 사용키에도 충분한 양이다.

태백지회 이창호 지회장은 “태백산 입구 도로변에 이미 400평 정도의 부지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며 “이 부지에 TMR발효사료제조장 뿐만 아니라 사슴장도 설치, 태백시민으로부터 위탁사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사슴산업이 태백시의 대표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태백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회장이 전하는 말처럼 태백시가 지역 사슴산업에 갖는 관심은 대단히 높은 편. 태백시는 이번 TMR사료기 지원 외에도 이미

98년 사슴보정틀 구입비로 4천만원의 시비를 태백지회에 지원한 바 있다. 태백지회 회원들은 지원 받은 보정틀을 통해 98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10~20두 정도의 인공수정을 실시해 왔다.

물론 이같은 적극적인 지원은 태백지회의 숨은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태백지회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농촌지도소, 농정산림과 축산계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시장 및 시의원, 기관장들에게 지역 양육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는 한편 녹용, 녹혈 시식회를 개최, 양육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시 차원의 관심을 유발키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태백시 역시 관광상품 마련의 한 방안으로 사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수려한 산세를 갖춘 지역 특성과 사슴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 사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케 된 것이다.

태백시는 이번 TMR발효사료제조 사업을 통해 태백사슴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꾀하고 고품질, 저가의 사료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창호 지회장은 “지역 사슴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태백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태백시 양육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번 TMR발효사료제조 사업을 통해 지회 회원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지역의 비회원들에게 알려 회원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양육**